

공안부의 신규 규정, 파룬궁을 박해하는 구체적인 안건에 참여한 인원에게 그 책임을 평생 추궁

[밍후이왕] 3월 1일, 중공 공안부는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 나타난 고의 혹은 중대한 오판사건에 대해 종신 법률 집행 과실 책임을 추궁하는 신 규정을 실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중공경찰의 파룬궁수련 신앙단체에 대해 대규모적인 박해 중 범한 각종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평생 추궁할 수 있다.

새로 수정한 ‘공안기관 인민경찰법 집행과실 책임추궁규정’(간칭: 추궁규정)중, 법 집행과실이란 경찰의 법 집행 중 고의로 혹은 과실로 조성한 사실인정 착오, 법률 적용착오, 법정 절차 위반, 위법처리 결정 등 법 집행과실을 가리킨다.

신 ‘추궁규정’ 제19조에는 만약 법률 집행 과정 중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며, 사리사욕(私利私慾)에 눈이 멀어 불법 행위를 하고,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을 시키며, 증거를 위조하고, 몰래 기밀을 누설하며, 의도적으로 보복하고 모함하고, 법률 집행 과실을 추궁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고의로 법을 잘못 집행하는 등 상황에 대해 엄중히 추궁한다고 규정했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근본적으로 중국헌법 신앙자유규정을 위반했으며, 중공 공안부에서 공포한 14개 사교조직 명단에는 파룬궁이 없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시작부터 법률기초가 없었기에 공안경찰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소위법 집행은 실지상 모두 위법적인 범죄이다.

중공의 전 괴수 장쩌민은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1999년 6월 10일에 ‘610 판공실’이란 범죄 기구를 전문

■ 파룬궁수련생들은 미국수도 워싱턴 DC 대 행진 중, 중공을 따라 파룬궁박해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시간을 다그쳐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고 중공을 이탈하여 신의 보호를 받아 평안을 얻으라”고 호소했다.(2009년 7월)



설립했다. 법률상으로 보면 그 본인은 아무런 법 집행권리도 없다. 그러나 ‘610 판공실’은 파룬궁 안건의 일체 사법 단계와 진행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손을 댔다. 예를 들면, 공안을 배치해 파룬궁 수련생을 납치해 세뇌반에 보내고, 불법적으로 노동교양을 시키고, 검찰원에 보내 체포 기소하고, 법원의 재판 결과에 관여하는 등 모두에 ‘610’이 손을 쓴 흔적이 있다.

중공공안, 특히 ‘610’인원이 장쩌민의 파룬궁박해 정책을 집행하는 중 적어도 뇌물을 받고, 법을 어기며, 사리사욕(私利私慾)에 눈이 멀어 불법 행위를 하고, 고문에 의한 강제 자백을 시키며, 증거를 위조하고, 의도적으로 보복하고 모함하고, 법률

집행 과실을 추궁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이 5가지 과실은 보편적으로 발생했다.

‘파룬궁 박해국제추적조사기구(WOIPFG)’발언인 왕즈위안(汪志远) 선생은 중공은 역차 운동 후 모두 추후 결산을 했다. 파룬궁 박해는 제일 큰 억울한 안건이다. 공안인원이 당시 그 어떤 명목, 정책, 명령으로 박해에 참여했든지 장래에 모두 추궁당할 것이다. 명령집행은 추궁을 피할 수 있는 이유로 될 수 없다. 현재 중앙으로부터 공검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책임 추궁 종신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박해원흉 장쩌민도 청산 당하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다. ◇

연변박해소식

◆둔화시 7명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당해

3월 11일, 둔화시에서 7명 파룬궁 수련생이 납치됐다. 그중 한 명이 왕룽(王荣)이라는 것만 알고 기타 사람의 성명은 모른다. 이 7명 파룬궁 수련생은 현수막을 걸다 납치되었거나 학습소조에서 납치되었거나 했다. 3월 14일 12시경에 70여세의 파룬궁 수련생 우위징(吴玉净)이 집에서 납치됐다..

◆투먼 파룬궁수련생 최명숙 불법적으로 4년 반 형을 선고 받다

3월말, 연변 투먼 파룬궁수련생 최명숙은 불법적으로 4년 반 형을 선고 받았다. 최명숙은 공민의 권리를 행사해 법에 따라 소송을 했는데도 여전히 연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투먼 파룬궁수련생 부전량 납치되다

연변 투먼시 파룬궁수련생 부전량(卜振良, 남, 50세경)은 투먼 칭다오(图们-青岛)행 열차의 승무원이다. 2016년 4월 1일, 부전량은 퇴근 후 투먼 역전에서 투먼시 공안국 국보대대 경찰에게 납치되었고, 집에 있는 컴퓨터 등 대법자료를 강탈당했다.



공산당이 월급을 준다”는 잘못 된 생각에 관해

[밍후이왕] 나는 대륙 공민이다. 헌법은 나에게 언론자유와 권리를 부여했다. 오늘 나는 한 두 가지를 말해 보겠다. 나는 파룬궁수련생이 사람들에게 진상을 말할 때 늘 이러한 비난을 받는 것을 발견했다

“공산당이 당신한테 월급을 주고 있는데 당신은 또 공산당을 반대하는가?” 어떤 사람은 “공산당이 나쁘다면 당신은 월급을 받지 말아야지!” 이러한 말들은 나를 깜짝 놀라게 했다.

“공산당이 월급을 준다”는 것은 틀린 인식이다. 세계 각 국가에서는 사람마다 노동의 대가로 “월급”을 받게 돼 있다. “양로 연금”도 노동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기본권리 중 하나이다. 바로 중공 때문에 우리나라 사회보험 체제가 뒤늦게 설립 됐던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실업을 당한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시위를 하던 정경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양로 연금”을 발급받게 된 것도 노동자 자신이 요구하고 노력한 결과이며 또 세계적 압력과 시대발전의 필연이다.

공산당은 농사도 짓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며 기업의 경영자나 관리자도 아닐뿐더러 더욱이 과학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발명창조도 하지 않는 데 그것의 돈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 백성들 (납세인) 돈이 아니란 말인가?

공산당이 백성의 돈을 빼앗고 있는 것이지 공산당이 백성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다.

공산당은 백성들의 돈을 빼앗아 한 무리의 전문 백성들을 착취하고 박해하는 당도들을 키워냈다. 이런 정당은 실은 검은 패거리이다. 우리는 검은 무리의 착취를 당하면서 왜 감사해야 하는가? ◇ (글 / 스옌)



[밍후이왕] 산둥성 지난(濟南)시 남쪽 교외의 한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는데 재앙이 끊이지 않기로 소문이 났다. 지난 세기 50, 60년대 이 집의 부모는 아들 네 형제를 키웠다. 가족이 번창하고 생활이 윤택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형제 네 명이 성인이 될 즈음 잇따라 재난과 불행이 찾아왔다. 형제 네 명 중 한 사람도 순조로운 생활을 하지 못했다.

우선 만이를 말하면 1986년 공사장에서 아스팔트에 화상을 입어 혈액중독으로 사망했는데 겨우 39 세였으며 그의 아내는 딸을 데리고 재가했다. 둘째는 결혼하지 못하고 줄곧 독신이었다. 셋째는 정신이상으로 자주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집에 올 줄 모른다. 넷째는 1999년에 자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지능이 비정상이었으며 아내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오랫동안 독신인 둘째가 농사짓고 채소를 심어 연로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먹여 살리고 있었다. 생활이 매우 어려운데 앞친 데 덮친 격으로 넷째가 자주 사람을 때리는 데 둘째 형까지 때린다고 했다.

사고, 빈곤, 질병에 폭력 등 각종 불행이 수십 년간 끊임없이 이 집에 뒤얹혔다. 이 건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사람들은 이 집의 각종 불행에 깊은 한숨을 쉬는 동시에 이 불행 배후의 여러 원인을 말하고 있었다.

“그들 집안 조상이 신상(神像)을 파괴하고 신을 공경하지 않아 응보 받았는데 후대까지 화가 미친 것이지.”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내막을 아는 사람은 또 말했다. “이 집 조상이 신상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신상을 화장실에 처넣었지, 정말 죄를 짓는 일이야.” 필자는 신상을 파괴한 사건의 자초지종을 캐묻지는 않았지만 말하는 사람의 말투로 봐서 이 집의 조상이 신상을 파괴한 것은 사실이었다. 중국의 전통적인 전설에 따르면 신을 공경하지 않고 모욕하는 것은 큰 죄악으로서 반드시 응보 받는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은 이 가족의 각종 불행은 모두 신을 공경하지 않은 업보라고 말했다.

올해 가을에 들어서 사람들은 뜻밖의 상황을 목격했다. 여전히 응보 받는 이 가족들에게 신기한 전환점이 나타난 것이다. 이날 둘째가 전동 오토바이를 타고 채소

를 팔러 가다가 길에서 레미콘 차에 부딪혀 넘어졌다. 오토바이와 함께 레미콘 바퀴 앞에 넘어졌는데 기사는 모르고 계속 앞으로 달렸다. 목격자가 크게 소리쳤다. “사람을 쳤어요, 멈춰!” 그러나 차는 5, 6 미터나 더 나아가서야 멈췄다. 신기한 것은 차가 5, 6 미터 주행하면서 바퀴가 돌지 않고 둘째를 그냥 밀고 갔다는 것이다. 둘째는 똑똑히 보았는데 떠밀려서 앞으로 갔다. 만약 차 바퀴가 굴러 갔다면 깔려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기사가 둘째를 차 바퀴 밑에서 끌어내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 다만 발 한 곳에 피부가 긁혀 상처가 생겼을 뿐이다.

“둘째가 교통사고가 났어. 이 집이 또 재난을 당했어!” 마을 사람들이 또 한번 끝없는 재난에 탄식할 때 둘째가 아무 탈 없이 무사하다는 소식이 전해왔다. “듣기로는 차 바퀴 밑에 있었지만, 차 바퀴가 깔고 가지 않고 밀고 갔다고 하네.” “너무 불가사의하군.” “정말일까?”

정 말이었다. 내막을 아는 사람이 이 속의 신기한 사연을 말했다. 원래 몇 년 전에 둘째는 파룬궁 수련생을 만났다. 그에게 파룬따파의 아름다움과 중국공산당 사당(邪黨)에게 박해 받은 진상을 알려주고 그에게 ‘3 퇴 (퇴당, 퇴단, 퇴대)’를 시켜 주었다. 이번 사고에 놀라긴 했지만 아무런 위험도 없었다. 둘째는 ‘3 퇴 하면 평안을 보장한다’는 신기함을 직접 경험한 것이다. 그는 파룬따파가 좋다는 것을 믿었다. 대법 사부님이 그를 보호해 주셨기에 재난이 행운으로 바뀌고 불행한 가정에 운이 트였다는 것을 믿었다. 퇴원한 후 둘째는 파룬따파에 대한 존경심을 품고 침대에 앉아 ‘전법륜’ 책을 보았다. 16년 동안 파룬궁 수련생들이 말한 가장 많은 두 마디는 바로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輪大法好)’를 자주 외우면 하늘이 행복과 평안을 하사합니다’, ‘3 퇴하면 무사 평안을 보장합니다’이다. 둘째가 위험했지만 무사해지고 재난을 당했지만, 행운이 나타난 것이 또 하나의 증거다. ◇글/ 지난(濟南) 대법제자